



도시사 선거 최우선 제주 현안은 ‘경제’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선거 영향 미칠 현안 ‘경제 활성화·민생 회복’ 28% 최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찬성·반대 의견 오차범위 내 ‘팽팽’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잘 하고 있다’ 평가 71% 기록

제주지역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 꼴로 제주도시사 선거에 미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선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와 삼다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은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성인 남녀 1015명을 상대로 진행한 제주도 현안 여론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 관련기사 2면

이번 제주도시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꼽은 응답이 전체의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16%)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의료 인프라 확충(13%) ▷교통·주차난 해결 및 대중교통 정책(11%) ▷중산간 난개발 제한 등 환경 보전(9%) ▷수입 농산물 대응 등 1차 산업 활성화(7%) ▷제주 4·3 관련 정책 및 지원 방안(4%) ▷우주 산업, 도심 항공교통(UAM)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각각 3%) 순이었다.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44%, 반대 의견이 50%로 오차범위(±3.1%) 안에서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건설사업 절차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차를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적인 검토나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절차와 검토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각각 26%로 동률을 이루며 그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45%, 반대 의견이 37%로 찬성 응답이 많았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 구역 조정 방향에 대해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59%로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다. 이어 ‘동제주시·서제주

시·서귀포시 등 3개 구역’(19%)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등 4개 구역’(18%) 순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71%로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 21%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편 한라일보와 삼다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공동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 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CATI)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8.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추자 해상풍력 사업 ‘좌초 위기’

단독 응찰 중부발전, 2단계 서류 미제출… 공모 유찰
에너지공사 “도와 협의해 재공모·사업 변경 등 진행”

세계 최대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참여 기업 중 도 포기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 2.0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사 선정 공개 모집에 응모했던 한국중부발전이 나머지 절차 이행에 필요한 2단계 평가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이번 공모가 최종 유찰됐다고 10일 밝혔다.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제주시 추자도 인근 400여㎞ 해상에 최대 24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3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이번 공모는 중부발전의 단독 응찰로 1단계 평가(PQ)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2단계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인 9일까지 중부발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유찰됐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중부발전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피했으나 1300억원 규모의 도민이익공유기금과 제주 단일 계통연계, 관할권 분쟁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력한 사업자로 거론됐던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도 공모에 최종 불참한 것을 비롯해 중부발전도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중부발전이 시공 능력은 있었으나 사업 추진 여건과 환경이 맞지 않아 내부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함께 이번 공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 재공모 혹은 사업 계획을 변경해 다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백지화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선을 그으며 “재공모에 대한 전제적인 방향성은 상반기 내에 결정하겠다”며 “추후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전 규모, 도민이 이익공유기금, 제주 단일 계통연계 조건 등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2.37GW 기준으로 산정했던 1300억 규모의 도민 이익공유금은 발전 규모가 축소되면 이에 비례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최 사장은 2.37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너무 과도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 최초로 대응량 설비 용량을 갖추는 사업이지만 외국계든 국내 발전 공기업이든 충분히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사업 여건이 입찰에 참가한 발전 공기업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도, 설 연휴 감염병·식중독 대응 비상근무

검사 체계 24시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연휴 기간인 14~18일 감염병과 식중독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휴 기간 감

염병과 식중독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와 원인 규명,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검사 체계를 24시간 가동한다. 보건소,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 유사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설 앞두고 피싱·스미싱 주의보… 4면 / 잇단 풍력발전기 꺾임 사고, 제주는 안전한가… 5면

